

재벌, 성차별 고질 못버려

경제정의연구소 조사 30개 대기업 중 27개 고용평등법 위반

국내 30대 재벌 가운데 27개 그룹의 여사원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3백인 이상 기업의 30%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대 재벌그룹 가운데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럭키금성으로 밝혀졌다. 기업의 규모와 위법을 상대평가한 결과는 해태가 가장 많이 법을 위반했으며, 현대가 가장 적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변형윤)가 3백인 이상 1천4백42개 업체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업체 5백63개(노동부 제공)를 대상으로 지난 한해 동안 △모집채용 △배치승진 △임금 △정년퇴직 △육아휴직 등 6개 부문에 대한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14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부문은 육아휴직으로 총 위반건수 9백19건 중 2백33건(25.4%)을 차지했으며 △배치

승진 2백32건(25.2%) △임금 2백14건(23.3%) △모집채용 1백53건